

Man and Cannon

Story

한 동 윤

Notice: The Story, All Names, Characters and Incidents Portrayed in this Game(Man and Cannon) and related Documents are fictitious. No identification with actual Persons (living or deceased), Places, Buildings and Products is intended or should be inferred.

알림: 이 게임 및 관련 문서에서 묘사된 이야기, 모든 이름, 등장인물과 사건 그리고 관련 문서들은 허구입니다. 실제 사람(살아있거나 사망한 사람), 장소, 건물 및 제품과는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원작자의 허가 없는 무단 복제, 출판, 전송(파일 업로드), 배포(출력물 등), 도용 등을 금지합니다.

이 문서에 사용된 이미지는 전부 Midjourney 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목차

2024 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1
2025 년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 수립	1
2025 년의 세계 정세	2
한국과 북한의 밀월 관계	3
2026 년 중국의 대만 침공 시작	4
연합군의 결성	5
결단	6
폭풍전야	7
초읽기	8
구원	8
작전명 자유의 찬송가	9
파죽지세	10
수 싸움	11
선은 넘으라고 존재한다	13
희망	13
후폭풍	14
절망	14
가이아 바이러스	16

들어가기에 앞서 이 문서는 2041년 인류 공화국 정부의 요청 아래에 동아시아 지역 정부 및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유관 기관, 생존자들의 협조 아래에 만들어진 기록물임을 알림.

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2024년 9월 1일, 길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세계 경제가 불안정 해지고 빈곤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미국을 위시한 유럽 정상들은 전쟁의 중재에 나섰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달 뒤에 이어질 대선을 노려 단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되며 국가채무, 젊은 경제 인력층의 사상률을 고려하여 미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인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평화협상은 없다며 극렬히 반대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불어나는 전쟁 비용과 줄어드는 서방의 군수 물자 지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중재안을 수용하며 러시아와 종전협상에 서명한다. 아래는 종전협상의 일부분이다.

"6. 서명국은 조속히 식량, 에너지 공급망을 복구하고 물자를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잃었으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점령을 인정받았고,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을 잃었으나 재건을 위해 서방국가들의 투자를 약속 받는다. 하지만 이은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협상에 서명한 정부에 반발하며 제1야당의 후보인 마리아 코샤코프를 대통령으로 앉힌다. 이후 미국은 중재 성공의 성과에 힘입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며 민주당 집권을 공고히 한다.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 수립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4년 10월, 인민해방군 수뇌부에 대만 침공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영토 합병 인정으로 끝난 결과를 보고 결심한 것이었다. 인민해방군은 금문도와 평후 현을 무시하고 본토 점령을 최우선 목표로 작전 계획을 수립한다. 원래대로의 작전 계획에 따르면 금문도를 먼저 점령하고 평후 현을 점령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맞았으나 금문도나 평후 현을 점령하는 동안 대만 본 섬의 방어가 증강되거나 미군이 반응할 시간을 주어 본토 점령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인민해방군은 대만 점령을 위해 단기간 섬멸전을 펼쳐 한 달 이내에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인민해방군 참모부는 전쟁 개시까지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총참모부의 지원을 받아 위게임*을 시행하는데 3개월, 위게임의 결과에 따라 전쟁 연습을 하는데 6개월, 나머지 3개월은 전방 물자 축적이었다. 계획 수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3개월의 위게임은 대만 본토 점령은 일주일 안에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인다. 산발적인 저항이 계속 이뤄지겠지만 실질적 지배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중국군은 확신을 갖고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한다.

2025 년의 세계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기 시작한다. 우크라이나의 밀 공급이 재개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안정화되자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보이고 물가는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빈곤국가들이 밀을 싼 값에 수입하게 되며 숨통이 트인다. 2 차 대전 이후 호황기를 누린 것처럼 새로운 호황기가 온다. 미 연방준비은행은 금리를 소폭 내리고 법인세 하향에 대한 개정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린다. 무엇보다도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고 고용률이 상향 곡선을 만들며 반도체 공급이 다량으로 풀리고 반도체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반도체를 이용하는 중공업 산업들도 활력이 돌기 시작한다. IT 산업은 AI 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며 새로운 중추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각 국가에서도 경제 예측 AI 를 도입하여 그들이 내놓는 답안에 따라 경제 정책을 짜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의외의 행보를 걷기 시작한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다. 세계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자 북한은 빠르게 핵 포기를 선언하고 값 싼 노동력을 내세우며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쟁탈전에 뛰어든다. 이때가 2025 년 1 월이었다. 북한 공장 부지 소개 영상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등장하며 국가의 사활을 걸고 뛰어든다. 이미 수십년에 걸친 고립된 경제 체제와 그에 따른 인민들의 굶주린 배가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이 위험하다는 총정치국의 보고를 듣고 나선 것이었다. 이 선언을 북한의 '1 월 선언' 이라고 한다.

'1 월 선언' 이후 북한은 과연 타 국가들이 먼저 다가와줄지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민하던 북한에게 먼저 접촉해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2025 년 2 월 16 일, 북한 핵 연구소의 해체를 구경하는 IAEA 전문가들과 인민들. - 주북영국대사관 사진 기자 벤 호프만

한국과 북한의 밀월 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북한의 핵포기 선언과 시장 개방 소식에 가장 기뻐던 국가는 한국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80년 가까이 진행된 작은 냉전이 끝난다는 말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통일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80년 동안 크고 작은 사건을 거치면서 한국의 국민들의 뇌리에는 통일에 대한 의구심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2010년대 초 북한이 행한 국지도발 등을 몸소 겪은 젊은 층들이 통일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통일을 하더라도 젊은 층들이 너무나도 큰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해 좋은 인식을 넣기 위해 정부는 언론을 입맛대로 편집하기 시작한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연일 통일 뒤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이 방영되었다. 인터넷에서도 통일 한국에 대한 기사나 동영상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켰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1월 선언' 이후 국정원을 통해 은밀하게 북한 총정치국과 접촉한다. 한반도의 냉전이 종료된 가운데 그 누구보다 빠르게 북한의 경제를 종속시켜야만 평화적인 통일에 다가갈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수였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재계 인사들을 회동하여 만찬 자리를 갖는다. 삼성, SK, 현대, 한화, 롯데 등 온갖 기업들이 모인다. 이 자리에서 나온 안건은 하나; "있는 역량, 없는 역량 총동원하여 북한의 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북한의 경제를 대한민국 아래에 종속시킨다." 이 회동은 이례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다. 단, 공개될 때의 내용은 '세계 경제 성장기에 빠르게 편승해야 한다'라는 골자로 공개가 된다. 북한과의 밀월 관계를 감추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번 더 부흥할 것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회동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은 물밑에서 북한 경제 살리기에 들어간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식량 및 의료 지원, 기획재정부의 외화 지원과 더불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자본으로 둔갑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공장 설립, 교육부의 21세기 디지털 기기 교육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2025년 상반기에만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고 매스컴은 이러한 북한의 국경 개방 상황을 대대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홍보한다. 하지만 일방적인 투자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다. 물밑 작업이 순조로이 진행되자 대한민국의 이강일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협상을 한다. 이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현재 협상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 소실되었지만, 남아있는 기록은 대한민국은 북한에 투자를 하는 대신 북한은 그간 쌓아온 미사일 기술과 핵탄두 기술을 대한민국에 넘긴다는 거래를 했다고 적혀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보는지 2025년 하반기 한국 국민들의 통일 지지율은 상반기의 20%에서 35%p 오른 55%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강일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강일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신년 기념사에서 북한을 칭찬할 정도로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

2026 년 중국의 대만 침공 시작

공산당 수뇌부는 26 년 11 월 24 일을 침공 기점으로 잡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지 3 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전쟁을 또 일으킨 침략국가 라는 비난 여론과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 뻔했기에 해가 지나기 전 대만을 집어삼키기로 했다. 오히려 서부, 남부전구와 중앙 전구의 정예 병력들까지 차출하여 동부 전구로 보내기 시작한다. 북부 전구의 병력들은 혹시나 모를 한반도 내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온전히 유지한다.

미 해군 정보부는 10 월부터 중국의 샤먼 시와 대만 해협에 많은 병력들과 군 타격 자산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했다. 미 해군 정보부의 보고를 받은 미국 정부는 국방부의 공식 성명을 통하여 세계 평화에 위협되는 행동에 미국은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중국 외교부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군사 훈련이라며 세계 평화에 위협되는 것이 일절 아니라며 일축한다. 미 해군은 11 월 15 일, 7 함대를 대만 해협에 급파하여 무력 시위를 벌인다. 중국 해군은 7 함대의 급파에 반응하지 않고 군항에서 전쟁 준비를 이어나간다.

7 함대가 각자의 항으로 돌아가고 난 24 일 새벽 1 시, 인민해방군의 함선이 남부와 동부 해안에서 각각 출항한다. 2 시간 뒤, 3 시 15 분, 인민해방군의 상륙 작전이 시작된다. 중국군의 계속되는 훈련과 동부 전구에 축적되는 인민해방군의 물자와 병력을 보고 경계태세를 격상시킨 대만군이었으나 한밤중에 진행된 상륙작전에 해안 경비 초소는 얼어붙었다. 자이현의 해안 경비 초소는 해변으로 곧장 달려오는 수많은 상륙정들을 보고 혼란에 빠졌다. 휘날리는 오성홍기를 보고 중국군이 상륙한다는 것은 인지를 했으나 실제로 침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기에 대만 군인들은 그저 얼빠진 표정으로 눈만 굴리고 있었다. 상륙정이 해변에 닿기 직전 누군가가 초소에 있던 사이렌을 울렸고 사이렌 소리는 대만 군인들의 귀를 때리며 대만 군인들을 깨워 놓는다. 곧 상륙을 막기 위해 총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고 초소는 타이페이의 사령부에 통신을 연결하고 상황을 알린다.

새벽 3 시 38 분,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전화 한 통에 잠에서 깬다. 비몽사몽 한 채로 전화를 받은 그녀의 귀에 공습 경보가 들렸다. 그녀는 곧바로 상황을 물어본 뒤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로 벙커로 간다. 대만 시민들은 느닷없는 경보 소리에 잠에서 깨어 상황 파악을 위해 TV 를 켜으나 화면에는 행동 요령과 상황을 알려주는 비상 방송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만 정부와 군부가 초동 조치에 힘쓰는 사이, 대만군의 해안 초소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해안 초소를 점령했다는 보고가 올라가자 마자 중국군은 미사일을 사용하여 대만의 기반 시설을 타격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만의 방공 체계가 작동하여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포격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만 내부에서 정치인들과 군 수뇌부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나오게 된다.

중국군은 자이현 해안에 지휘부를 설치하고 병력들은 대로를 따라 곧장 대만 내 여러 대도시들로 향하는 중이었다. 사이렌이 울리고 행동 요령이 방송되고 있었지만 대만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 지도 모르고 있었다. 대로를 따라 간헐적인 전투가 벌어졌으나 중국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대만인들이 지켜보는 사이에 새벽 4 시 47 분, 기어코 가오승에 중국군의 전차와 보병 행렬이 진입한다. 하지만 영웅은 난세에

나타나는 법이라고 했던가. 한 남자가 중국군의 행진을 막아서기 위해 중국군의 대열 맨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있었다.

중국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민사 작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중국군은 상륙 작전 실행에 앞서 대만 민간인 또는 항복한 적 병력에 대한 어떠한 폭력이나 약탈 등 전쟁 범죄 행위를 금지하는 엄명을 내렸다. 이러한 명령이 있었기에 한 사람이 대열을 막아섰을 때 중국군의 대열이 일제히 멈췄다. 한 보병이 그 사람과 대화로 풀려 했으나 그 자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보병들 여럿이 달려들어 그를 대로에서 끌어내려고 했다. 그 사람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숫자 앞에서 적수가 되지 못하고 끌려 나가는 듯했다. 끌려 나가는 순간에도 그는 저항을 했는데 그 순간 한 발의 총성이 들린다. 총성에 놀란 군인들이 바닥을 살피자 대열을 막았던 남자의 머리에 구멍이 난 채 쓰러져 있었다. 군인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차량에 탑승했고 대열은 기존 속도의 2~3 배의 속도로 도시를 주파하기 시작한다. 전차의 궤도와 트럭의 바퀴가 쓰러진 남성의 시신을 짓밟고 지나갔다.

이 모습을 가오슝의 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영상은 SNS 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 나간다. 대만인들은 이 영상을 접하고 분노하여 거리로 뛰어나온다. 중국군은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 계획이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연합군의 결성

대만 정부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미군은 11 월 24 일 오후 5 시, 7 함대에게 곧바로 출동 명령을 내린다. 미국 입장에서 경제 호황기에 대만의 반도체 공급 회사들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7 함대는 입항하자마자 다시 출항 준비를 서두른다. 1 초라도 빨리 대만에 도착하여 대만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7 함대 소속 원정군 병력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 미 해군 7 함대의 원정군은 약 2 만명의 규모의 지상 병력을 가지고 있다. 2 만명의 지상 병력이 대만에 상륙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함대가 그에 맞춰 움직이려 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 대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함대는 먼저 일부 해군 함선과 소수의 병력들을 대만으로 급파한다.

미 해군의 7 함대가 준비를 마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연락을 취한다. 미 행정부는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3 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계산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로코와 알제리의 지속되는 분쟁, 터키와 그리스 간의 갈등까지 세계의 온갖 분쟁이 폭발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전쟁 특수를 통해 많은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이득을 보았지만 세계가 한 번에 폭발하면 이득은 커녕 인류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변한다. 따라서 조기에 막강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군의 전의를 분쇄하고 전쟁을 빠르게 끝내 일말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군은 여기서 대한민국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생각한다. 물론 중국의 전의 분쇄는 미국 단독으로도 가능했다. 하지만 단독 작전은 미국의 더 많은 자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그것은 곧 더 많은 미 시민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대응군의 파견을 요청한다.

대한민국의 이강일 대통령은 11 월 25 일 밤 9 시 09 분, 바이든의 전화를 받고 잠시 고민에 잠긴다. 북한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어 전력의 공백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장의 상황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도 상 짧은 시간 안에 대만에 갈 자원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자택을 지배하고 있을 때 바이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몇 통의 전화를 걸던 이강일 대통령은 해병대 1 사단 예하의 해병 제 2 여단을 신속대응군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이강일 대통령은 해병 2 여단장인 박중환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비밀리에 부치고 해군 상륙정에 탑승하여 대만으로 향하라 지시한다. 심란하던 이강일 대통령의 마음이 한 숨 놓인 것은 박중환 대령이 건넨 한 마디였다. 이는 이후 서울에서 진행된 해병 2 여단 개선식 연설에서 밝혀진다.

“대통령님, 우리 해병대는 한국전쟁 때부터 자유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 해병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술 한 잔 데워 놓아주십시오.”

해병대 2 여단 건물이 환하게 밝혀졌고 이윽고 어두워졌다. 해병 2 여단은 11 월 26 일 새벽 3 시, 2 여단의 병력들이 탑승한 상륙정이 대만으로 출항한다. 이강일 대통령은 자택에서 서울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군 병력을 파견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정보력 때문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자금 투자의 대가로 핵탄두 및 미사일 기술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정보를 이용해 이강일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었다. 이강일 대통령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다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짬뽕 정장을 입고 씩씩한 표정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향한다.

결단

미국과 한국이 파병에 관하여 긴밀한 논의가 오갈 때 대만의 거리에는 민간인들로 넘쳐났다. 저항하던 시민이 인민해방군의 총탄에 쓰러진 영상을 보고서 감명받은 대만 시민들이 거리에서 민간 저항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25 일 늦은 밤, 파죽지세로 달려나가던 중국군의 전차 행렬은 타이중 시와 화롄 시를 잇는 선에서 멈췄다. 많은 민간인들이 두꺼운 인간 벽을 만들었고 중국군의 진군을 막아섰다.

인민해방군 원정군 사령관인 린쥔펑 소장은 행렬을 전진시키기 위해 예하 부대장들을 닥달하고 있었다. 인민해방군은 허공에 위협사격을 가해 겁을 주거나 힘으로 민간인을 밀어내는 등 어떻게든 진군하고 있었으나 그 속도는 작전 개시 직후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느려졌다.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에 열이 올라오던 그에게 인민해방군 해군 정보부로부터 정보가 하나 날아든다. 미 해군이 함대를 급파했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머리는 결국 폭발한다. 타이페이 시를 빠르게 점령하지 못하면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미 해군이 보급선을 끊을 것이고 공세는 종말점에 이르러 역으로 포위를 당할 것이라는 결

과는 그 자리에 있던 참모진들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 작전 실패 후 공산당에서 날아올 숙청의 칼날 역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결국 린쥘핑 소장은 결단을 내린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눈을 감고 귀에 집중했다. 무전이 들렸다. 인민해방군은 26 일 새벽 3 시, 결국 타이페이를 포위한다.

폭풍전야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를 싣고 타이페이로 급파되는 7 함대의 사령관인 조나단 샤키프는 자신의 기함이었던 블루 릿지를 요코스카 항에 두고 순양함에 탑승하고 있었다. 이미 무력시위를 하는 동안 전투기를 출격시켜 항공유를 소모해 급유를 받아야 했던 원자력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은 급유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렇다고 자신의 기함인 블루 릿지를 타고 이동하자니 무장도 빈약하고 보호를 해줄 함선들도 급유와 전쟁 물자를 싣느라 바빴다. 그는 무력 시위에 동행하지 않았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USS 샤일로에 옮겨 댔다. 한국 해군의 상륙함 노적봉은 창원에서 한국 해병대 2 여단의 병력들을 싣고 합류 중에 있었다.

사령관은 순양함에 같이 탑승한 참모진들과 함께 상륙작전을 입안 중이었다. 2 만명 규모의 미 해병대 원정군이 오기 전 까지 미 해병 원정 부대 약 2 천명과 한국 해병대 약 1 천 5 백명, 4 천도 안 되는 병력들로 상륙을 성공시키고 전진기지를 구성해야만 했다. 작전은 이려했다. 지룽 시 해변에 상륙하여 지룽 시를 거점으로 확보하고 고속도로를 통해 타이페이 포위망에 구멍을 뚫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령관의 얼굴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다. 첫 번째 이유는, 항모가 없었다. 이 말은 곧 전투기가 없다는 뜻이고 이는 제공권을 완전히 뺏긴 채로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병력이 터무니 없이 적었다는 것이다. 상륙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전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가 기댈 곳은 인민해방군이 타이페이를 점령하는데 정신이 팔려 해안 방어가 약할 것이라는 정보였다.

작전 시각은 27 일 새벽 6 시 10 분. 동쪽 해변에 상륙하는 만큼 해가 떠오를 때의 빛을 등지고 작전을 개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나마 바다가 평온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지룽 시까지 2 시간 정도 남았을 때, 인민해방군 해군이 미 해군의 행렬을 막아선다. 그들은 경고 방송과 더불어 미 해군의 진로를 차단하는 차단기동을 벌이며 미 해군을 어떻게든 지연시키려 노력한다. 이는 미군과 교전을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교전하여 미국 본국의 철퇴를 늦추겠다는 계산에 의한 전술적 행동이었다.

사령관인 조나단 샤키프는 중국 해군의 차단 기동을 보고 각 함에 기동 무시 및 목표를 향해 전진을 명한다. 미 해군 함선들이 지그 재그 기동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본 중국 해군은 경고 사격을 실시한다. 함선들 근처에서 폭발과 함께 물보라가 높이 일었고 미 해군 함정들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때 1 파로 상륙해야 할 병력들이 탑승하고 있던 상륙함 하나가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췄다. 함선의 스크류 하나가 경고 사격에 피탄 되어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다. 미 해군은 상륙함을 호위하기 위해 방어 진형을 만들었다. 이후 미 해군 역시 수 발의 포탄으로 중국 해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

중국 해군은 미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해협에서 이탈한다. 상륙함이 기동을 멈추어 최소 수 시간의 시간을 벌었기에 전술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중국 해군이였다. 미 해군은 늦어진 속도에 상륙 작전 개시 시간을 오후 8 시로 늦춘다.

중국의 원정군 사령관 린원평 소장은 해군이 만들어준 천금 같은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았다. 그는 타이페이 포위망을 형성하던 병력 중 1 개의 연대급 병력을 차출하여 지룽 시로 보냈고 방어선을 견고히 하라고 한다. 그는 미군을 내륙으로 끌어들여 복잡한 도시 지형에서 그들을 각개격파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1 파를 해변에서 막더라도 나중에 본함대와 2 만명 규모의 해병 원정군이 상륙하게 된다면 해변에서 막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럴 바에 지룽 시의 인프라를 붕괴시켜 미군의 진입을 막고 한 곳으로 유도한 뒤 제공권과 포병 화력으로 섬멸하는 것이 그의 작전이었다. 그는 그가 총애하던 지휘관인 하오 젠야 상교(서방 계급으로 대령)에게 방어 작전을 맡긴다.

이 즈음 중국 원정군의 분대가 평후현을 점령했고 평후 공항에 중국 공군기들과 보급 물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평후 현의 대만군은 공항을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싸웠으나 중국군이 전파 납치 후 흘린 타이페이의 총통부가 점령당했다는 거짓 무전에 휘말려 항복한다. 타이페이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초읽기

타이페이 포위망이 형성된지 1 시간, 타이페이에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다른 도시에서 중국군을 피해 타이페이로 흘러 들어온 민간인들,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경찰, 도시 외곽으로 나아가 방어전을 벌이려는 군인들이 한데 뒤얽혀 있었다. 외곽에서는 끊이질 않는 총성과 포성이 울렸고, 도시의 방공망은 타이페이의 하늘을 뒤덮었다. 민간인들은 이윽고 공포에 감염된다. 차이잉원 총통은 총통부 지하에서 상황 수습에 진땀을 쏟으며 미군이 도착하기 만을 바라고 있었다.

타이페이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방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해 저항하는 대만군의 모습은 처절함 그 자체였다. 보급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부상병들은 제때 후송되지 못하고 있었다. 쓰러진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고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

20 만 원정군이 민간인들마저 처형해가며 파죽지세로 달려온 터라 방어선을 두텁게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는 곧 타이페이가 지옥도가 된 이유였다.

구원

미 7 함대장인 조나단 샤키프는 입을 틀어막고 바다를 보고 있었다. 상륙함의 스크류를 고치기 위해서는 7 함대 본함대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7 함대의 본함대가 도착하기까지는 10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했다. 타이페이의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10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강 건너 불 구경을 하는 짓이었다. 걱정은 하나 더 있었다. 상륙을 하더라도 이미 포위당한 타이페이까지 가기가 힘들 것이 자명했다.

미군 정찰 위성의 사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중국군의 지룽 시 방어선은 시시각각 견고해지고 있었고 도시의 인프라는 붕괴되고 있었다. 건물과 도로의 붕괴 상황을 분석한 샤키프 함대장은 공격 가능 방향이 한 곳으로 좁혀지는 것을 알게 된다. 함대장은 갑판으로 나가 스크류 수리 작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 전투정보실에서 희소식이 들려온다. 순양함의 레이더에 대한민국 해군의 상륙함과 호위 함선 두 척이 잡힌 것이었다.

이후의 상황은 빠르게 진척된다. 사고가 난 상륙함에 타고 있던 병력들이 한국 함선에 올랐고 한국 상륙함들은 만재 배수량을 아슬아슬하게 맞춘 상황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상륙함대는 지룽 시를 향해 항해한다.

작전명 자유의 찬송가

어둠이 내려앉은 27 일 오후 6 시, 해변을 30km 앞두고 상륙작전이 시작된다. 병력을 실은 장갑차들이 지룽 시의 해안선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갔고 상륙 병력들은 별 다른 저항을 맞이하지 않고 해안선에 상륙한다. 원정군은 사령부를 내륙에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는 작전이었다. 제공권과 화력에서 앞서지 못하기에 내륙에 사령부를 설치했다가 날아드는 포탄에 지휘가 마비될 위험을 배제한 것이었다. 연합군은 어둠 속에서 지룽 시 탈환 작전을 세우기 시작한다. 작전은 지룽 시를 빠져나가는 고속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모두가 군장을 확인하고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박중환 대령은 배속 받은 수색중대와 7 함대의 네이비 씰에게 침투 명령을 내린다. 그는 상륙작전이 진행되기 이전에 조나단 함대장에게 2 가지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이란, 박중환 대령이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타이페이의 포위망을 뚫어내는 것이 하나였고, 상륙군의 현장 지휘를 맡겨달라는 것이 두번째 제안이었다.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이유로는 방어선을 뚫고 상륙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전투의지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계산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다만, 함대장 조나단은 현장 지휘를 한국군 지휘관에게 맡기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는데 박중환 대령이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박중환 대령은 강하게 그의 손을 쥐었다.

해병대 수색중대는 해안선에서 벗어나 북서쪽으로 향한다. 얼마나 걸었을까 모르는 그 때 뒤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지룽 시 탈환 작전이 시작되었다. 수색중대는 총성을 등에 업은 채 묵묵히 걸었다. 겨울철에 아득히 내려앉은 칙흑이 그들을 덮고 있었다. 3 시간 뒤 그들은 산베이 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열명의 중국군 초계병들과 조우한 것이 이때였다. 해병대 수색중대는 중국군의 초계병들을 단번에 제압하고 타이페이 시로 진군 속도를 높인다.

수색중대는 타이페이 외곽에서 중국군을 피해 타이페이 시 내부로 들어가려 힘쓰고 있었다. 그들은 외곽의 7 부 능선에서 타이페이 시내를 바라보았다. 흰 색을 띤 큰 건물 주변에서 폭발과 총성이 들렸다.

건물에는 금색 한자 밑에 병원이라 쓰여 있었다. 건물 옥상에서는 휴대용 방공 무기를 든 병사들이 지상과 공중 할 것 없이 표적을 쏘고 있었고 건물에는 사람과 차량이 한데 뒤섞여 건물을 오가고 있었다. 대만군은 피아식별 띠로 파란색을 팔에 둘렀다는 정보를 파악한 연합군이었기에 연합군은 미리 파란색 띠를 준비했다. 해병대는 파란띠를 오른팔에 두르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투에 들어간다.

그 시각, 연합군과 중국군은 지룽 시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한창이었다. 1 파로 상륙한 연합군은 해안선의 명물이었던 마리타임 플라자와 지룽 역 사이에서 전투를 이어 나가고 있었다. 미군은 전투에 단련된 군대인지라 야간 전투도 무리 없이 해내고 있었지만 한국군은 그 반대였다. 전투 경험이 전무한 한국군은 야간 장비도 변변치 않았다. 특히 20년대부터 대두된 간부 처우 문제로 인해 간부들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이는 해병대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전투를 이끌어야 할 초급 간부들이 전투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었다. 박중환 대령은 해안선의 간이 사령부에서 지휘자 유고에 대한 보고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효율적인 지휘로 점령지를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었다.

인민해방군 사령관인 린쥘핑 소장은 총통부 건물 점령에 몰두하고 있었다. 평후 현을 점령하면서 전투기의 출격도 쉬워졌고 공격에 대한 모든 이점을 쥐고 있었다. 그는 가오슝에 있던 사령부를 타이중 시로 옮겼다. 중국군의 최선봉은 타이페이 101 타워를 목전에 두고 전투 중이었고 총통부 건물까지 단 6km 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몇 시간만 지나면 중국의 대만 통일 야욕은 곧 실현될 예정이었다. 그 때, 또 다른 비극이 그의 귀를 때린다. 미 7 함대와 해병원정군이 지룽 시에 상륙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예견된 일이고 미군이 방어를 뚫고 타이페이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자명했으므로 그 전에 총통부를 점령하고 총통을 체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마비시킨 건 그 뒤에 따라온 보고였다. 타이페이 동북쪽에 위치한 군 병원을 점령하기 위해 교전 중이던 부대가 팔에 성조기를 부착한 사람을 식별했다는 보고였다. 린쥘핑 소장은 확인 후 다시 보고하라고 소리지른다. 그의 머리에 온갖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린쥘핑 소장의 머리가 아파져 올 때 추후 보고가 들어온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타이페이 포위망을 뚫었다는 것이다. 미군에 대한 보고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한국군의 참전 소식에 눈이 뒤집힌 린쥘핑 소장은 휘하 제대들에게 총통부 점령을 최우선 목표로 지정하고 공격을 한 곳에 집중하라고 명령한다. 전방위에서 몰아치던 중국군의 공격 방향이 수 군데로 줄어들었지만 그 강도는 전례 없이 강해진다.

군 병원에 들어온 해병대 수색중대와 미 네이비 씰은 눈 앞에 펼쳐진 지옥도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술실에 자리가 없어 원무과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수술, 살고자 피난처를 찾아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민간인들, 봉대를 감고 다시 전장에 투입되는 병력들. 그들은 무전을 빌려 대만군에게 연합군의 상륙 소식을 알리고 희망을 불어넣는다. 연합군의 참전 소식은 대만군에게 전투 의지를 유의미하게 고양시켰다. 이 때가 28 일 새벽 5 시, 새로운 날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파죽지세

7 함대가 지룽 시에 도착했고 미 해병원정군 병력도 속속들이 대만 땅을 밟는다. 함대장 조나단은 자신의 기함인 블루 릿지로 옮겨 타고 작전의 지휘를 맡는다.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에서는 F-35B

가 출격하여 대만 상공을 향해 날아갔다. 이윽고 하늘에서 제공권을 위한 싸움이 벌어졌고 지상에서는 미 해병원정군이 물밀처럼 지룽 시로 밀려 들어간다. 조나단은 함대를 둘로 나누어 분견대를 만들고 분견대로 하여금 대만 남부로 향하여 평후 현과 그 주변에 정박한 중국 해군에 대한 와해를 명령한다.

7 함대가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자 중국군은 바람 앞에 낙엽처럼 쓸려 나간다. 중국 공군의 5 세대 전투기이던 J-20 은 스텔스 능력이 F-35 에 비해 형편없었고 파일럿의 기량 차이도 컸다. 중국군의 지룽 시 방어선은 후퇴를 거듭하여 지룽 시와 산베이 시의 경계까지 다다랐다. 이 시점에서 중국군은 제공권을 잃었고 모든 면에서 연합군에게 압도되고 있었다.

하오 젤야 상교는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방어선을 재구축해 타이페이까지의 연합군이 도착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지연 작전을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의 파죽지세와 같은 기세와 공격을 늦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나 한국군은 초급 간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은 미군의 그것을 상회했다. 한국 시민들이 가진 반중감정이 폭발했고 이는 해병대라고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박종환 대령이 병사들의 달아오른 감정을 억제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이러한 달아오른 감정으로 인해 한국군은 연합군 내에서도 최선봉을 자처하며 방어선을 뚫어내었다. 연합군은 작전 시작 14 시간 만인 28 일 오전 8 시 타이페이 외곽까지 도달한다.

수 싸움

연합군은 타이페이 수복에 돌입한다. 침투한 연합군 특수부대의 정보로 연합군이 타이페이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된 대만군은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한다. 전쟁 발발 이후 혼란 속에 동원되지 못한 대만 예비역 시민들도 거리의 무기를 잡고 저항하기 시작한다. 연합군이 도착하기 직전 총통부를 5km 앞에 둔 중국군은 혼비백산이었다. 중국군은 대만군과 연합군 사이에 끼어서 이제는 점령이 아닌 살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린쥘핑 소장은 공세에서 방어로 전환하는 작전을 수뇌부들과 논의 중이었다.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중국군 사령부에 평후 현에 주기 중이던 중국 전투기들이 파괴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정박 중이던 해군이 7 함대가 도착하자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온다. 린쥘핑 소장은 크게 한숨을 내쉰다. 이윽고 그는 모든 중국군에게 철수 명령을 내린다. 결국 중국의 대만 침탈 야욕은 작전 개시 4 일 만에 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린쥘핑 소장은 모든 중국군은 상륙했던 가오슝 시로 철수하되 연합군과 대만군의 전선에 막힌 북쪽의 병력들은 양밍 산에 들어가 숨으라 지시한다. 그는 가오슝에 도착한 뒤 대만이 아닌 미 7 함대 사령관인 조나단 샤키프에게 항복 선언을 한다. 대만군에게 항복할 경우 대만의 피의 복수가 자행되면 20 만 규모의 원정군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또한 차이잉원 정부의 명줄을 늘릴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항복 선언이었다.

중국군의 항복 선언을 받은 샤키프 함대장은 대만 섬 내의 모든 연합군의 전투 행위를 중단시킨다. 그는 이 항복 선언을 받아들여 전쟁을 끝내고 미국을 전쟁의 영웅으로 내세우고 싶어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누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항복을 받아들이되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몇

가지 달았다. 샤키프는 조건을 듣고서 린쥘핑에게 협상 날짜와 장소를 고지한다. 장소는 항모 로널드 레이건 갑판, 시간은 29 일 오전 9 시였다.

연합군이 중국군과 항복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대만군은 중국군을 추격하기 시작한다. 아들, 남편, 아버지를 잃은 대만인들은 악에 받쳐 항복하는 중국군까지도 전부 사살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샤키프 함대장이 총통에게 중국군의 항복 일정과 장소에 대해 통보한다. 소식을 들은 대만 수뇌부와 군부는 격노한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며 이럴 수는 없다고 하는 와중에 양밍 산과 인근 지역에 중국군 잔존 병력들이 숨어들었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군부는 포로는 없다며 전부 사살하려는 명령을 내리려 한다. 그 때 부총통 라이칭더가 군부를 막는다. 부총통은 오히려 포로를 잡아야 대만이 항복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한다. 그는 차이잉원 총통에게 북부 지역으로 도망친 중국군을 최대한 포로로 삼아 인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한다. 부총통의 냉철한 판단에 대만 군부는 북부 지역의 중국군 패잔병들을 포위하고 섬멸전에 들어간다.

29 일 오전 9 시, 갑판에서는 항복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중국군과 미국은 각각의 조건을 나누고 논의 중이었다. 첫 자리에서 중국이 내건 조건은 20 만 원정군의 무사 귀환과 대만의 보복 금지와 전쟁 범죄에 대한 치부를 묻지 않는 것으로 총 세 가지였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재침공 금지, 파괴된 대만 복구를 위한 자금 및 노동력 지원, 대만, 미국에 대한 전쟁 배상금과 중국군의 군축을 조건으로 건다. 협상 자리가 지지부진 할 때 대만군이 북부에 숨은 중국군을 찾아 포로로 데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미국과 중국은 포로를 가오슝의 중국 원정군 기지로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대만은 협상에는 대만 대표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결국 대만은 라이칭더 부총통이 대만 대표 자격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대만이 내건 조건은 총 세 가지였다. 중국의 대만 독립국 지위 및 두 개의 중국 가치 인정과 중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격 박탈, 마지막으로 첫번째 조건에 따른 중국과 미국의 대만 외교 수교였다. 대한민국도 협상 테이블에 한 조건을 더해보려 했으나 이강일 대통령은 후에 있을 협상에 씨먹을 카드로 남겨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는다. 이후 여러 차례의 조정 과정을 거치며 조건을 확정지은 삼국은 중국 원정군의 항복 협정 문서에 조인한다. 최종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중국은 대만의 독립과 두 개의 중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대만과 중국 양국은,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일체 중단한다.
3. 중국은 대만의 사회 복구 비용 중 75%를 부담한다.
4. 중국은 사회 복구에 관련된 대만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5. 중국은 대만과 미국에게 전쟁 배상금 항목으로 각각 50 억 달러를 배상한다.
6. 대만과 미국은 중국 대만원정군에 대한 무사 귀환을 동의하며 이를 보장한다.
7. 대만은 중국군의 유해 송환에 동의한다.

2026 년 11 월 30 일 오전 9 시 4 분, 이렇게 또 하나의 전쟁이 역사서에 쓰이게 된다.

선은 넘으라고 존재한다

베이징 주석궁에서 항복 문서 조인에 승인한 시진핑은 끓어오르는 모멸감과 패배감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기리라 믿었던 인민해방군이 패배한 것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 내용이 그를 잠 못 들게 하고 있었다. 이것 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전쟁에 실패한 이상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했다. 이미 원정에 참여했던 고위 장교들은 전부 처벌을 받았고 원정을 주도한 린뱌핑 소장은 원정군을 무사귀환 시킨 공로를 참작 받아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그러나 대만 침공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중국군 가족들의 항의는 큰 시위로 번진다. 나아가, 중국 공산당은 대만과의 전쟁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북한에게 무력 도발 지령을 내렸으나 이미 경제가 대한민국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던 북한은 지령을 무시한다. 전쟁 실패와 북한과의 통제 불가라는 상황이 한 번에 덮친 것이었다.

시진핑은 당장 1년 밖에 안 남은 27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두려워졌다. 전쟁 실패로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쏠리는 만큼 이대로는 대회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절박해진 그는 태자당의 내부 연구소에 새로운 생화학 병기 제작을 의뢰한다.

희망

새해를 한 달 앞둔 12월 1일, 해병대 2여단은 서울 광화문 앞 거리를 걷고 있었다. 신속대응군으로서 파견된 사실이 파견을 위해 항구를 떠나자마자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이강일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에 대해 해명을 하는 등 사회와, 특히 파견된 군인들의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진땀을 뺐다. 그들이 승리했을 때 가장 크게 안도감을 느낀 자도 그였다.

그는 광화문 앞에 마련된 단상에서 해병대 2여단의 개신 행진을 보고 큰 미소와 함께 박수를 쳤다.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모두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었고 그들을 위한 박수와 함성소리로 거리를 채웠다. 광화문의 빌딩에는 태극기가 걸렸고 꽃잎과 콘페티가 하늘을 가렸다. 해병대원들은 꽃을 목에 걸고서 위풍당당하게 서울을 행진했다. 행사가 끝나고 온 국가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국정원장의 메일에는 중국에 파견된 요원으로부터 하나의 보고가 올라오지만 국가 분위기와 국정원의 내부 파벌 갈등이 혼재한 상황 속에 조용히 묻히게 된다.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 2 여단 소속 장병들 - 국방부 사진기자 홍성수

후폭풍

공산당은 전쟁 이후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무마하는데 노력하고 있었다. 유가족들의 시위에는 합당한 보험금 및 연금 지급, 유해 송환과 더불어 오는 대만의 공식 요청들 따위를 처리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었다. 일반 공산당원들도 중앙당과의 연을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대만 침공 실패는 국가에 큰 애착심을 가지고 있던 중국 청년들로 하여금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중국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애착 심리가 깨어지면서 혼란한 사회상과 함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중국 사회가 깨지고 있었다. 중국 사회가 흔들리는 와중에 태자당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공청단과 상하이방이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치적으로 태자당을 고립시켰다. 공청단과 상하이방은 많은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산당을 자신들의 계파로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자당은 생화학 병기의 개발을 계속 독촉하게 된다. 그리고 27년 6월, 연구소에서는 ‘아르보(Arbor)’라는 이름의 녹색 용액을 개발한다.

절망

이 ‘아르보’라는 용액은 식물과 결합할 때 반응을 나타내는 용액이다. 식물은 이 용액과 접촉했을 때, 급격한 성장 촉진과 더불어 주변의 동물로부터 생명력을 흡수하는 성질을 띄게 된다. 또한 용액과 접촉한 식물이 그렇지 않은 식물과 접촉할 경우 용액에 접촉한 것과 같은 성질을 띄게 된다. 시진핑은 연구소를

방문하여 용액 개발 단계를 시찰하고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바로 연구원들에게 용액 투하 방법을 개발하라고 지시한다.

7 월, 리커창의 자택 앞에 작은 소포가 도착한다. 리커창의 아내인 청홍은 소포를 뜯어본다. 작은 USB 가 담겨있었고 청홍은 리커창에게 USB 를 전달한다. 리커창은 23 년 3 월,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공청단의 원로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USB 에 기록된 내용물을 본 리커창은 경악한다. 시진핑과 그의 계파인 태자당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전 세계에 테러를 자행한다는 계획을 본 것이다. 용액 투하 방법으로 고도계를 이용한 투하 방법을 선택했고 8 월 16 일 새벽 2 시에 실행된다는 내용이었다. 용액은 풍선을 타고 올라가고 일정 고도에 도달함을 감지하면 풍선이 폭발하고 용액을 담은 유리병들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방식이다. 리커창은 공청단 원로들과 회동을 갖는다. 회동 자리에서 공청단은 상하이방과 결탁하여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21 차 전국대표대회를 2 달 앞둔 무더운 8 월 15 일, 21 차 전국대표대회의 개막이 예고된다. 이윽고 칙칙이 내려 앉은 베이징의 거리에는 묘한 기류가 감돈다. 태자당의 요원들은 베이징의 자금성 안에서 용액을 풍선에 걸며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1 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자금성 내부로 공청단의 요원들이 들이닥친다. 곧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고 태자당의 요원들은 몇몇 요원들이 시간을 끄는 가운데 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한다. 풍선이 날아가는 것을 본 태자당의 요원들은 바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공청단의 요원들은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것 마냥 허탈하게 날아가는 풍선들을 보고 있었다.

그 시각 상하이방은 상하이에 위치한 태자당의 연구소를 폐쇄하기 위해 요원들을 파견했다. 태자당의 연구소는 비용을 받고 DNA 검사를 해주는 민간 연구소로 위장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DNA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상하이방은 ‘아르보’라는 용액의 개발에 이렇게 수집한 민간 DNA 정보가 크게 도움을 주었으리라 추측했다. 요원들은 연구소에 들이닥쳐 모든 자료와 용액들을 폐기 처분하기 시작한다. 그 때 연구소의 문이 열림을 감지하고 태자당의 경비 인력들이 연구소에 들어오며 상황은 아수라장이 된다. 상하이방의 요원들은 끌려가는 와중에도 연구소의 폐쇄에 노력하지만 경비 인력과의 몸싸움 중에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나고 곧 액체가 상하이 시내로 들어간다.

16 일 아침 8 시, 중국의 방송에는 상하이에서 일어난 폭발에 대한 소식과 상하이와 그 주변 도시에서 일어나는 소요 사태들이 흘러나왔다. 그러한 와중에 중국의 SNS ‘웨이보’에서 ‘좀비’라는 단어의 언급과 함께 괴생명체의 사진이 공개되며 중국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중국 태자당은 소요 사태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인터넷의 정보를 검열하기 시작한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직감한 공청단과 상하이방은 내부 조사를 시작하고 곧 연구소의 폭발로 인해 용액이 상하이 시내로 들어갔다는 것을 연구소 폐쇄 당시 현장에 있던 상하이방의 요원에게서 듣는다. 공청단과 상하이방은 이것을 권력에 앓을 명분으로 보았다. 그들은 베이징 위수구의 사령관과 거래를 한다. 사령관에게 주석 자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진핑과 그의 파벌을 축출해달라는 거래였다. 베이징 위수구의 병력들 역시 대만 침공 실패 후 중국의 변화를 바라고 있던 엘리트 인원들이었고 그들은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 주석궁을 공격한다. 곧 시진핑을 비롯한 태자당의 인원들은 처형당하거나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가 자취를 감춘다.

권력을 잡은 공청단과 상하이방은 소요 사태에 진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그들은 인민해방군과 공안 등 모든 무력 집단들을 동원하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을 봉쇄하고 방어선을 구성하였으나 이러한 방어선도 압도적인 숫자의 괴생명체에게 압도당하며 빠르게 무너진다. 그렇게 사태는 베이징, 시안 등 대도시들로 퍼져 나가며 사태 발발 3 일 만에 중국은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수 많은 괴생명체는 길을 따라 한반도로 흘러 들어온다.

가이아 바이러스

풍선은 한반도에도 날아온다. 각 대도시와 강원도의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용액이 투하되었고 나무가 뼈곡히 들어찬 한반도에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 16 일 오후부터 식물들이 동물을 흡수하는 동영상들이 SNS 에 빠르게 퍼졌고 곧이어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총성과 포성이 들린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이강일 대통령과 몇몇 수뇌부들은 청계산에 위치한 벙커로 이동했으나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시민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벙커에는 온갖 정보들이 날아들었다. 식물이 흡수한다, 동물이 사람을 문다, 식물이 걸어다닌다 등의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각 지역의 군 부대로부터 올라온다. 정부는 벙커에서 상황 파악과 통제를 위해 지역의 군부대들로 하여금 방어선을 구축하라 명한다. 하지만 보병사단들도 정부와 똑같이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고 그저 괴생명체로부터 달아나고 있었을 뿐이다. 괴생명체들의 활동은 전기와 통신망을 끊게 되고 더욱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군 부대는 작전다운 작전을 펼치지 못한 채로 자연스레 소멸하게 된다. 혼란에 잠식된 정부도 벙커에서 전화나 돌릴 뿐 이렇다할 지시를 못하는 와중에 벙커에도 괴생명체가 침입하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도 사라지게 된다.



바람을 등지고 불을 질러 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을 불태우는 해병대 1 사단의 장병들 - 출처 미상

그 시각 포항의 해병대 1사단장을 맡고 있던 박중환 소장은 보고를 듣자마자 포항과 인근 도시들의 상황을 파악한다. 포항 시내는 용액으로부터 안전한 듯 보이자 그는 빠른 결단을 내린다. 포항, 경주, 울산을 이르는 방어선을 긋고 벽을 만들기 시작한다. 해병대와 살아남은 포항의 민간인들은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긴 방어를 위해 참호와 간이 벽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박중환 소장은 병사들로 하여금 벽 밖의 식물체들을 불태우라 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 지르기가 오히려 악수가 된다는 사실을 멀지 않은 날에 깨닫게 된다.

해병대 1사단은 군 무전 망을 활용하여 인근 군 부대들에게 포항으로 모여달라고 말한다. 이를 들은 것은 대구의 50사단과 부산의 53사단, 그리고 왜관에 위치한 캠프 캐럴의 주한미육군 물자지원사령부였다. 이미 초토화된 상황에서 50사단과 53사단은 살아남은 병력들과 민간인을 최대한 규합하여 벽 안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포항에 컨테이너를 이용해 간이 집들을 만들었다. 각 지휘부가 모여 방어를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끝